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송민교*

Min Gyo Song 

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인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고 학교생활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방과 후 음악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생,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 방과 후 음악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elementary stud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For this study, 747 elementary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 grades were surveyed, and the resultant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tudents. Second,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of elementary students. Four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tudent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Fifth, the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of elementary students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pathways of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for helping children adapt to school life, preventing school maladjustment problems, and promoting positive music activities.

Key words: elementary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ng-song@hanmail.net

Lecture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5, Reviewed (Revised): 31 December 2025 (1 February 2026), Accepted: 6 Februar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이전의 가족이나 유치원보다 훨씬 크고 엄격한 규칙을 가진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된다(Yoo & Son, 2022).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 공간을 넘어,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내면화하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중요한 발달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동이 가정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이며,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력을 길러나가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Elliot, 1972; Yang & Kim, 2024). 따라서 아동기에 학교에서 습득된 능력들은 상급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Yang & Kim, 2024).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아동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im & Chun, 2012).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Yoo & Son, 2022). 그러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고립,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oo, 2021). 따라서 아동기에 학교 환경과의 성공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아동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개인 내적 변인인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Park & Jang, 2016). 거부민감성이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상, 그리고 그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의미한다(Park & Jang, 2016).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타인에게 거부당할까 봐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패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학습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교사의 피드백이나 지적을 개인적인 거부로 해석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Jeong, 2012),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석, 정학, 유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24; Park & Jang, 2016).

요컨대, 거부민감성은 개인적 수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무한한 경쟁 교육 및 변화하는 입시 경쟁에 따른 조기 선행학습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힘들어하며, 편중된 학습으로 인한 경험 부족, 또래와의 관계 부족 등 다양한 학업·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Kim & Kim, 2015; Woo, 2021).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들의 심리적 행복감을 낮게 지각하게 한다. 심리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지,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된다(Kim & Kim, 2015; Lee & Kim, 2022). 특히 아동기의 심리적 안녕감은 현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Kang & Song, 2022; Jang et al., 2016).

선행연구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가 우울 및 부적응적 관계와 연관되며(Furr & Funder, 1998), 높은 삶의 만족도는 자존감, 낙관성 등 긍정적 특성과 연결됨을 밝혀,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높은 거부민감성은 거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Kim & Lee, 2010),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음악활동은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 Choi, 2025). 실제 연구들에서도 재활동악활동이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의 우울을 완화하고(Chae, 2013),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내적 역량 강화, 우울 감소 및 학교적응과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Choi, 2025).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볼 때, 방과 후 음악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며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지원하고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Han et al., 2023),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은 정서 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안정감,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Kim, 2012), 그리고 합창/밴드 활동 등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지 및 소속감 강화(Hong & Cho, 2014; Song & Choi, 2025)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여부가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음악활동을 활용한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여 학업이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성공적으로 형성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Hong & Cho, 2014).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회화 기관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몰입이나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된 교육적 과제이다(Jo & Oh, 2012). 또한 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기술 습득이나 지적 기능 차원이 아닌, 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종합적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Soh, 2024). 이처럼 학교생활은 초등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갖는 학자들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접근을 시도한다. 학교생활적응을 학교 환경에 관한 초등학생의 지각 및 감정으로 제시하거나(Ladd et al., 1996), 학교생활의 조화 및 만족에 중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하기도 하였고(Choi & Moon, 2013), 학교학습의 과정이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가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다(Kang et al., 2014)라고 정의하는 연구도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정의는 학교생활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전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어느 한 부분에 주목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애순과 조규판(Hong & Cho, 2014)이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에게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 학교 만족도, 심리적 안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Moon, 2005).

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이란 중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 거절에 관한 빠른 지각이나 과민한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정서적·인지적 경향성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대체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거절을 지각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수행 상황에서 큰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적대감, 지지 철수, 분노 등을 나타내는데(Lee et al., 2014; Levy et al., 2001), 이런 일련의 반응은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Park & Chong, 2008). 또한 이런 반응 과정에 대해 거부민감성 모형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부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불안하게 거부를 예측하거나, 촉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인지 및 정서 반응을 보이고, 이런 반응이 곧 부적응적

행동 반응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Downey & Feldman, 1996; Levy et al., 2001).

결국 대인관계에서 부정 정서를 반복 경험함으로써 이에 관한 자신의 무능을 인지하고, 추후 거부에 더 예민하거나 과잉 반응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사회인지와 부정 정서경험, 무능력 확인 또는 사회적 거부 강화 등으로 직결되므로 거부 민감성은 학교부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Park & Park, 2019).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지,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규정된다(Kang & Song, 2022; Jang et al., 2016; Diener, 1984; Ryff, 1989). 이는 신체건강, 경제수준, 가족관계, 주거환경, 여가 활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Abbey & Andrews, 1985), 사회 환경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Emmons & Diener, 1985).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먼저 낮은 삶의 만족도는 우울 및 다른 사람과의 부적응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문제, 약물복용 등과 같은 건강 및 손상 행동(Furr & Funder, 1998; Zullig, et al., 2001)과 관련되며, 높은 삶의 만족도의 경우 높은 자존감, 내적 통제소재, 낙관성, 친사회적 행동 등(Ben-Zur, 2003)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의 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됨을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발달 단계상 인지적인 면에서 볼 때, 조작적 사고의 발달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 이해를 통한 사회 적응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기이다(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2014). 또한 오르프(C. Orff)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상상력이 자극받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 통제를 통하여 정서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Orff, 2006). 이에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은 그 자체로도 유의하지만 다른 긍정적 결과에 공헌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4. 변인 간의 관계

1)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거부민감성을 나타내는 남녀 고등학생은 또래관계 속하고 지지받는 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춰 또래관계 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im, 2017). 그리고 20대 국내 거주 성소수자 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Ko et al., 2021).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대학생은 자신이 경험하는 거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hin, 202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은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0).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청년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Kim & Cho, 2025).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거부에 과민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대인 불안이 높고(Kang & Park, 2024),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의 질이 낮으며 교과 수업, 교사, 학교환경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Jeong, 2012). 김시라와 김지신(Kim & Kim, 2018)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지 못하나 또래들의 욕구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여 또래관계 문제를 일차적으로 보일 수 있고, 지배하고 관여하는 등의 간접 차원과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며 사회적으로 억제되는 등의 냉담차원의 또래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나 지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Jeong, 2012) 교사와의 갈등으로 처벌이나 정학 처분을 받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Downey et al., 1998).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취가 낮아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우며(Lee, 2004), 자신의 욕구 충족과 규칙 준수라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Lim, 2022).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은 학업 성취와 규칙 준수를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수업 성취 및 학교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Park & Jung, 2016).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Ryff, 1989)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다는 것은 학교생활 안에서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미루어 해석할 수 있다. 주위의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그리고 학교수업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Klemens & Bikos, 2009)는 연구결과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Kim et al., 2010; Monn, 2009; Moon & Kim, 2002)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양미와 김동원(Jung & Kim, 202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환경지배력, 긍정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은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다는 것은 대인갈등이나 우울 등을 예방할 수 있다(Wai & Yip, 2009)는 의미이다.

4) 음악활동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상황(학업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 상황 내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Hong & Cho, 2014)라고 정의할 때 적응이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Jo & Yoon, 2020).

최근 들어 음악치료의 영역에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치료적 음악활동이 상호작용, 대인관계 등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 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Yoon & Park, 2019). 또한 음악 치료에 관한 한 연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불안 감소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면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불안 성향이 높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고 사회성이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게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Kim & Moon, 2025).

박정은(Park, 2022)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국악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국악 치료를 실시한 집단이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 스스로가 인식한 학교생활 적응 점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악활동 및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고되고 있다(Kim, 201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교사 및 아동 상호 간의 다양한 활동 교류가 이루어지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음악활동은 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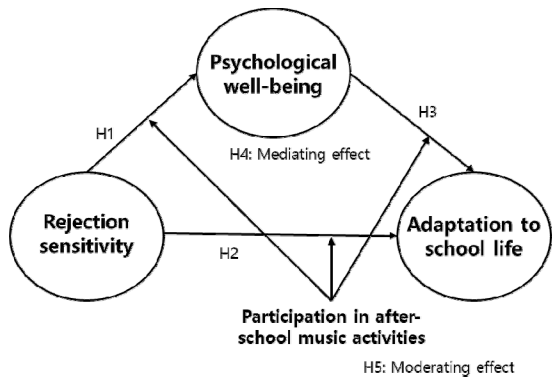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 H1: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H5: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수도권 3개 초등학교와 경남지역 3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전달하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직접 배포, 회수되었다. 배포된 700부 중, 66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미응답한 부분이 많아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예: 한 개 이상의 측정 도구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음) 124부를 제외한 54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음악활동(학교마다 1회 당 40~50분 참여)에 참여하는 학생 268명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총 276명이 참여하였다.

음악활동 참여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아래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X^2/p
		Not participating(n = 276)		Participation(n = 268)		
		N	%	N	%	
Gender	Male	141	51.1	129	48.1	0.474(.494)
	Female	135	48.9	139	51.9	
Total		276	100.0	268	100.0	
Grade	4th	92	33.3	105	39.2	4.826(.090)
	5th	76	27.5	82	30.6	
	6th	108	39.2	81	20.2	
Total		276	100.0	268	100.0	

3. 측정도구

1)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우니와 펠드만(Downey & Feldman, 1996)이 개발하고, 박지윤과 정영숙(Park & Chong, 2008)이 한국문화에 맞게 변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관련 거부 상황 8가지, 교사 관련 거부 상황 4가지의 총 12가지 거부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거부 불안 12문항, 거부분노 12문항, 거부우울 12문항과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도 12문항, 총 48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불안한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우울한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화가 나는가?’, ‘선생님께서 너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등이 있다. 이때 각 상황별 총점은 3가지 반응인 거부 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과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도를 각각 곱하여 계산하며 거부민감성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의 평균 점수를 합하여 총합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거부민감성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거부불안 .855, 거부분노 .713, 거부우울 .704, 거부예상 .718, 거부민감성 전체 .860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마세(Masse et al., 1998)가 개발한 척도(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 WBMMS) 심리적 안녕감을 박은정과 최수미(Park & Choi, 2014)가 변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본 연구대상인 초등학교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신적 균형 4문항, 사회적 참여 3문항, 사회성 3문항,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3문항, 행복감 3문항에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나는 평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낀다.’,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며, 거의 최상의 상태라고 느끼는 편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신적 균형 .818, 사회적 참여 .839, 사회성 .866,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795, 행복감 .805, 심리적 안녕감 전체 .85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용래(Kim, 2000)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소남영(Soh, 2024)의 척도를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문항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 영역당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석구석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한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환경 .828, 학교교사 .856, 학교친구 .822, 학교수업 .880, 학교생활적응 전체 .836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통한 신뢰성 확인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변인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고, 소벨 검증(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음악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생활적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생활적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Table 2>와 같이 $\chi^2 = 443.602$, $df = 62$, $GFI = 0.892$, $AGFI = 0.842$, $NFI = 0.879$, $IFI = 0.894$, $TLI = 0.866$, $CFI = 0.894$, $RMR = 0.031$, $RMSEA = 0.086$ 등의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지수의 경우 GFI , $AGFI$, NFI , IFI , TLI , CFI 는 0.8 이상, RMR 은 0.05 이하, $RMSEA$ 는 0.08 이하로 나타날 경우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수준에 대부분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Lee, 2017).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443.602 (.000)	62	.892	.842	.879	.894	.866	.894	.031	.086

다음으로 요인부하량(λ)의 경우 0.690~0.90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Table 3>, 이는 요인 부하량의 기준인 0.5 이상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가 각각 기준치인 0.7 이상,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Hong & Jung, 201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R	AVE
Rejection sensitivity	→	Rejection anxiety	.784	Fix	-	.895	.680
	→	Rejection anger	.748	.052	10.207***		
	→	Rejection depression	.717	.070	14.956***		
	→	Expect rejection	.745	.054	9.576***		
Psychological well-being	→	Mental balance	.902	Fix	-	.939	.758
	→	Social participation	.719	.049	19.878***		
	→	Social skills	.720	.043	19.914***		
	→	Control over oneself and events	.882	.041	28.944***		
	→	Euphoria	.690	.043	18.684***		
Adaptation to school life	→	Adaptation to school life	.722	Fix	-	.887	.662
	→	School teacher adaptation	.706	.059	15.076***		
	→	Adapting to school classes	.809	.064	16.997***		
	→	Adjusting to school friends	.791	.057	16.696***		

*** $p < .001$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거부민감성(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 심리적 안녕감(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사회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행복감), 학교생활적응(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거부민감성의 거부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의 정신적 균형($r = -.494, p < .01$), 사회성($r = -.496, p < .01$),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r = -.522, p < .01$), 행복감($r = -.467, p < .01$)과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의 사회적 참여($r = -.373, p < .01$)와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거부민감성 중 거부불안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교사($r = -.307, p < .01$), 학교친구($r = -.424, p < .01$)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우울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환경($r = -.320, p < .01$), 학교수업($r = -.406, p < .01$)과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녕감 중 정신적 균형이 학교생활

적응의 학교교사($r = .452, p < .01$), 학교친구($r = .426, p < .01$)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은 학교생활적응의 학교수업($r = .378, p < .01$),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는 학교환경($r = .388, p < .01$), 행복감은 학교친구($r = .403, p < .01$)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본 결과 왜도 0.148~0.930, 첨도 0.165~1.389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7).

<Table 4>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ejection sensitivity	1	1												
	2	.456**	1											
	3	.607**	.321**	1										
	4	.259**	.253**	.248**	1									
Psychological well-being	5	-.494**	-.304**	-.381**	-.248**	1								
	6	-.360**	-.116**	-.373**	-.273**	.683**	1							
	7	-.496**	-.210**	-.399**	-.418**	.622**	.487**	1						
	8	-.522**	-.302**	-.387**	-.324**	.621**	.602**	.606**	1					
	9	-.467**	-.441**	-.391**	-.245**	.579**	.540**	.623**	.574**	1				
Adaptation to school life	10	-.258**	-.309**	-.320**	-.203**	.352**	.284**	.342**	.388**	.315**	1			
	11	-.307**	-.199**	-.282**	-.183**	.452**	.311**	.318**	.372**	.251**	.458**	1		
	12	-.333**	-.235**	-.406**	-.270**	.321**	.324**	.378**	.341**	.350**	.634**	.583**	1	
	13	-.424**	-.353**	-.390**	-.197**	.426**	.311**	.416**	.414**	.403**	.563**	.583**	.610**	1
Mean		2.24	2.52	2.40	2.40	3.71	3.73	3.67	3.91	3.63	3.79	3.59	3.59	3.90
SD		.688	.590	.785	.622	.779	.798	.697	.668	.679	.887	.801	.866	.764
Skew		.572	-.442	.195	-.157	.699	.598	.686	.930	.567	-.379	-.252	-.148	-.453
Kurtosis		.165	-.185	-.349	-.702	.436	.189	.900	1.389	.633	-.419	-.289	-.699	-.286

** $p < .01$

Rejection sensitivity: 1=Rejection anxiety, 2=Rejection anger, 3=Rejection depression, 4=Expect reje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Mental balance, 2=Social participation, 3=Social skills, 4=Control over oneself and events, 5=Euphoria

Adaptation to school life: 1=School teacher adaptation, 2=Adapting to school classes, 3=Adjusting to school friends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5>와 같으며, χ^2 ,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 수준에 부합하였다(Lee, 2017).

<Table 5> Study model fit

$\chi^2(p)$	df	GFI	AGFI	NFI	IFI	TLI	CFI	RMR	RMSEA
265.905 (.000)	58	.930	.891	.928	.942	.922	.942	.031	.081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Table 6>에서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beta = -.725, p < .001$)과 학교생활적응($\beta = -.483, p < .001$)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beta = .205, p < .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725	.058	-13.669***	.000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483	.098	-5.832***	.000
Psychological well-being	→	Adaptation to school life	.205	.079	2.816**	.005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7>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1$), 간접효과($p < .01$)와 총효과($p < .001$)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Results of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of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483***	.000	-.148**	.005	-.631***	.000

*** $p < .001$, ** $p < .01$, * $p < .05$

4. 다중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가운데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비교 실행하기에 앞서 조절변수인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집단을 이용하여 미활동 집단($n = 276$)과 활동 집단($n = 268$)으로 분리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형(free model or unconstrained model) 간의 χ^2 차이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잠재변수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Table 8>.

자유모형의 경우, $\chi^2 = 540.826$, $df = 124$ 이며, 제약모형의 경우 $\chi^2 = 554.765$, $df = 134$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자유도가 10 증가하였는데, 이때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차이는 $\Delta \chi^2 = 13.939(df = 10)$ 로 나타났다. 자유도(df)가 10 일 때 $\chi^2 = 18.31$ 이상이라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χ^2 의 차이가 18.3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집단은 동질하며,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Lee, 2017). 또한 AGFI, CFI, TLI, RMSEA 등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8> Fitness of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Division	$\chi^2(p)$	df	AGFI	CFI	TLI	RMSEA
Free model	540.826	124	.808	.882	.851	.079
Constrained model	554.765	134	.810	.880	.851	.079

분석에 앞서,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가설의 경로는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Path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after-school music activity groups

Path			Not participating($n=276$)		Participation($n=268$)	
			S.T β	Sig.	S.T β	Sig.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798***	Sig.	-.609***	Sig.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675***	Sig.	-.516***	Sig.
Psychological well-being	→	Adaptation to school life	.117	No Sig.	.465***	Sig.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인 유의한 경로들의 조절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방과 후 음악활동 미

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X^2 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Table 10>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among after-school music activity groups

Path Constrained			X^2	df	ΔX^2	Sig.
Free Model			540.826	124	-	-
Rejection sensitivity	→	Psychological well-being	557.891	125	17.068	Sig.
Rejection sensitivity	→	Adaptation to school life	545.418	125	9.592	Sig.

분석 결과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인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로 나타났다. 다중집단의 경우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에 대한 자유도(df)의 차이가 1일 때 $\Delta X^2 = 3.84$ 보다 클 경우 한 쪽 집단의 β 값이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Lee, 2017).

자세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의 경로에서는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beta = -0.798$)이 활동 집단($\beta = -0.609$)보다 거부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는 방과 후 음악활동 미활동 집단($\beta = -0.675$)이 활동 집단($\beta = -0.516$)보다 거부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인 747명이고,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379명,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36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희와 이지연(Kim & Lee, 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이는 초등학생 시기의 또래 관계, 학교생활,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거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사회성 기술 훈련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개입 및 예방적 노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시라와 김지신(Kim & Kim, 2018), 정지연(Jeong, 2012)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 학교생활, 교사관계 등에 문제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학업, 교우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교사의 지적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개입 및 예방적 노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양미와 김동원(Jung & Kim, 2025)의 연구에서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 삶의 만족감, 자존감 등이 높을수록 학업, 교우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에서는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학생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im & Lim, 2017; Ko et al., 2021)와 일치한다. 거부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이는 아동은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서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거부당하는 상황에 환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며 이를 괴로운 상황으로 인지하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선행연구들(Jung & Kim, 2025; Kim et al., 2010; Monn, 2009; Moon & Kim, 2002)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학생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Jung & Kim, 2025).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Moon, 2009),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며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Jung & Kim, 2025).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이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교실 현장과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심리적 안녕감]과 [거부민감성→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만 방과 후 음악활동 여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에서는 모두 방과 후 음악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서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음악활동 참여가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과 후 음악활동 참여는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의 불안, 좌절감, 외로움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방과 후 음악활동을 통해 또래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거부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

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으로 방과 후 음악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악기 연주, 합창, 음악 감상, 음악 치료 등 맞춤형 음악활동을 제공하고,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를 확보하여 방과 후 음악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방과 후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방과 후 음악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음악활동이 단순히 취미를 넘어 다층적인 심리사회적 보호 기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음악을 통해 언어적 어려움 없이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악기 연주나 합창 등의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합주나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르고 집단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며, 꾸준한 연습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내재심도 향상시킨다. 이처럼 음악활동은 거부 경험이 주는 불안감과 위축감을 완충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무관하게 접근가능한 다양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과정 중심 및 관계 중심의 지도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초등학생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객관적 검사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방과 후 음악활동은 음악활동의 내용, 강도, 기간, 질적인 측면(지도자 역량, 프로그램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활동 참여 여부만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음악활동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의 다양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언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인 개입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bbey, A., & Andrews, F. M. (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34. <https://doi.org/10.1007/bf00317657>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s: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67-79. <https://doi.org/0.1023/a:1021864432505>
- Chae, M. (2013). Effect of rehabilitation music therapy on depression of maladjus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ehabilitation Music Therapy*, 1(1), 29-45.
- Choi, H. L., & Moon, Y. K. (2013). Impact of community spirits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5, 189-209. <https://doi.org/10.15300/jcw.2013.06.45.18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https://doi.org/10.2307/1132363>
- Elliot, D. S. (1972). *Delinquency and the school*.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1), 89-97. <https://doi.org/10.1177/0146167285111008>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Furr, R. M., & Funder, D. C. (1998). A multimodal analysis of personal neg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580-1591. <https://doi.org/10.1037//0022-3514.74.6.1580>
- Han, S. M., Kim, Y. L., Kim, J. E., Jung, D. K., & Cho, S. Y. (2023). A study on the guidance of an elementary school A Cappella after-schoo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ulture*

- and Arts Education Studies*, 18(1), 171-194. <https://doi.org/10.15815/kjcaes.2023.18.1.171>
- Hong, A. S., & Cho, G. P. (2014).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45-68.
- Hong, S. H., & Jung, S. (2014).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in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ories and procedur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1(4), 1-24. <https://doi.org/10.14431/jms.2020.10.13.3.39>
- Jang, S. H., Choi, E. H., & Lee, J. H.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everyday life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5(2), 353-364. <https://doi.org/10.17643/KJCE.2016.25.2.18>
- Jeong, J. Y.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quantity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 Jo, H. J., & Oh, I. S. (2012). The influence of self-encouragement activities on elementary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1(1), 35-49.
- Jo, Y. H., & Yoon, I. A. (2020). The effect of self-concept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middle school sports club on sociality and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34(1), 93-109. <https://doi.org/0.16915/jkapesgw.2020.3.34.1.93>
- Jung, Y. M., & Kim, D. W. (2025).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chool adapt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at risk of interrup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Therapy*, 17(1), 25-43. <https://doi.org/10.35185/KJET.17.1.2>
- Kang, M. H., Yoo, Y. R., & You, J. W.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achievement, school satisfaction, perceived teacher attitude, and learning attitude for high school student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Korean Scientific Research*, 45(1), 181-203. <https://doi.org/10.15854/jes.2014.03.45.1.181>
- Kang, Y. S., & Park, J. H. (2024).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interpersonal anxiety. *Human Ecology Research*, 62(1), 165-179. <https://doi.org/10.6115/her.2024.012>

- Kang, Y. B., & Song, W. I.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7(3), 61-83. <https://doi.org/10.56023/mcyca.2022.7.3.3>
- Kim, H. J. (2012). The effect of Orff music therapy on sociality and self-regulation of maladjust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5), 73-86.
- Kim, J. H., Doh, H. S., Shin, N., & Kim, M. J. (2011). The mediating role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lated str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4), 217-232
- Kim, J. H., & Lee, J. Y. (2010). Pathways through which mothers' child-related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affect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8(3), 3-14.
- Kim, J. W., & Lim, M. J.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8), 807-825.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8.807>
- Kim, M. H., & Moon, J. Y. (2025). The effects of musical instrument playing music therapy activities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7(1), 79-96.
- Kim, M. S., Kim, K. S., & Yang, G. S.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Education Inquiry*, 42(2), 99-119. <https://doi.org/0.22327/kei.2024.42.2.099>
- Kim, S. J., & Kim, S. H.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49-70.
- Kim, S. L., & Kim, J. S.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f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2), 1-21. <https://doi.org/10.22839/adp.2018.7.2.1>
- Kim, Y. 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 & (B).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17), 3-37.

- Kim, Y. Y., & Cho, S. B. (2025).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adul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4(6), 979-992.
- Klemens, M. J., & Bikos, L. H. (2009).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in college-aged, repatriated, missionary kids.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2(7), 721-733. <https://doi.org/10.1080/13674670903032629>
- Ko, H., Park, Y. J., & Park, H. K. (2021).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sexual minor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6(3), 165-184. <https://doi.org/10.18205/kpa.2021.26.1.00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85.x>
- Lee, E. B., & Kim, J. W. (2022). The effect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on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Forum For Youth Culture*, (69), 129-158. <https://doi.org/10.17854/ffyc.2022.01.69.129>
- Lee, H. K., Kim, K. H., & Lee, H. K. (2014).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aggression: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catastrophic thinking through positive affec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1), 97-121.
- Lee, H. S. (2017).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24*. Jihyeonjae.
- Lee, J. S. (2004). Predicting mother-child relationship,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in kindergarten to school adjustment in first-grade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333-357.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University of New Orleans.
- Lim, J. H., & Chun, J. S. (2012).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69-190.
- Lim, Y. L. (2022).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2), 393-405. <https://doi.org/10.5762/KAIS.2022.23.12.393>
- Massé, R., Poulin, C., Dassa, C., Lambert, J., Bélair, S., & Battaglini, A. (1998). The structure

- of mental health: Higher-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5, 475-504. <https://doi.org/10.1023/a:1006992032387>
- Moon, E. S. (2005).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087-1108.
-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19-241.
- Moon, Y. J. (2009).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social welfare maj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31-51.
- Orff, C. (2006). *Karl Orff Schulwerk* (Y. J. Kim, Trans.). Music World.
- Park, E. J., & Choi, S. M. (2014). The study on a validation of 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495-511.
- Park, J. E. (2022). *The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reatment programs on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ity and self-elasticit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Park, J. H., & Jang, Y. J.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4(1), 357-384. <https://doi.org/10.18230/tjye.2016.24.1.357>
- Park, J. Y., & Chong, Y. S. (2008). Constructions of rejective situations for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15-37.
- Park, J. Y., & Park, J. H. (2019). The effect of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on depression in upper-elementary-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Life-span Studies*, 9(2), 69-84. <https://doi.org/10.30528/jolss.2019.9.2.00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Shin, Y. J. (2024).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 Soh, N. Y. (2024).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 Song, M. G., & Choi, J. O. (2025).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regarding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through after-school music activities on school

- adjus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5(3), 488-503. <https://doi.org/10.5392/JKCA.2025.25.03.488>
- 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2014). *Elementary school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Hakjisa.
- Wai, S. T., & Yip, T. H. J. (2009). Relationship among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other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3), 365-368. <https://doi.org/10.1016/j.paid.2008.11.001>
- Woo, S. J. (2021).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hildren's academic stress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3(4), 61-73. <https://doi.org/10.36431/JPE.13.4.4>
- Yang, Y. J., & Kim, Y. H.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timulation at home i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8(2), 135-152. <https://doi.org/10.32349/ECERR.2024.4.28.2.135>
- Yoo, K. H., & Son, Y. S. (2022).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8), 496-505. <https://doi.org/10.5762/KAIS.2022.23.8.496>
- Yoon, E. J., & Park, H. Y.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s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6(2), 79-108. <https://doi.org/10.21187/jmhb.2019.16.2.079>
-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Oeltmann, J. E.,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substance ab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 279-288. [https://doi.org/10.1016/s1054-139x\(01\)00269-5](https://doi.org/10.1016/s1054-139x(01)00269-5)